

金錢을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류 해 춘**

<국문초록>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사설시조에서는 애정과 관련된 재화(財貨)나 금전(金錢)이 등장하여 그 당대 사람들의 애정과 경제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부란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가정의 아내로서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물질문제나 금전문제는 물질적 궁핍을 강요하는 사회와의 투쟁이 드러나지 않고 오락성이나 유희성의 측면에서 재화나 금전의 과소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난 사설시조의 성담론은 여성의 성적 억압을 상상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욕망의 투사체이거나 혹은 대리 만족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다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 우리 사회의 풍류방이나 유희의 산물로 흥행한 사설시조에 담겨있는 주부의 모습은 유교적 질서가 확고했던 조선시대에도 여성이 가정 내에서 그 역할이 점차 변해가고 있었으며, 현대 사회의 주부들 못지않게 자유롭고 발랄한 성담론을 구사하고 있었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금전을 매개로 한 주부들의 성담론이라는 주제는 현재 무너져가는 가족관계와 천민자본주의 그리고 성(性) 산업의 노예가 되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사설시조, 금전, 성담론, 천민자본주의, 오락성, 유희성, 투사체, 풍류방, 현대인

* 이 논문은 한국시조학회가 2005년 10월 8일(토)에서 9일(일)까지 양일간 『동아시아 정형시의 정체성과 형식미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제학술발표대회(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한 글을 토론자인 김명희(강남대) 교수와 김상진(한양대) 교수의 도움으로 집고 고친 것임을 밝혀둔다.

** 성결대 교수

1. 서론

자본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봉건시대인 조선 시대나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재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에서는 애정과 관련된 재화(財貨)나 금전(金錢)이 등장하여 그 당대 사람들의 애정과 경제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설시조에서 금전을 매개하고 있다는 의미는 사설시조의 담론에서 금전이 주제가 되거나 소재가 되어 작품의 주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금전을 매개로 하고 있는 주부의 성담론은 작가가 주부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사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담론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화자가 여성인 주부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사설시조에는 가정의 주부가 성담론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애정 생활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종종 있다. 주부란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가장의 아내로서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 화자¹⁾는 크게 기녀(妓女), 각씨(閨氏), 주부(主婦)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설시조의 성담론을 기녀나 각씨에 한정된 논의가 주류²⁾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시각을 달리하여 사설시조의 화자가 주부

-
- 1) 류해춘, 「사설시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유형과 그 특성」, 『어문학』 52집, 1990, 참조.
 - 2) 김석희, 「사설시조 '각시너 내 첩(妾)이 되나'의 의미와 의미변용」, 『조선후기 시가연구』, 월인, 2003.
김종환, 『사설시조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의 표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학원(박사), 1994.
박애경, 『조선후기 시조의 통속화 과정과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학원(박사), 1997.
이영태, 「'각씨너[네]~' 시조의 검토와 '각시너 내 첩이 되나'의 해석」, 『시조학논총』 22집, 2005.

인 작품을 찾아내어서 작품에 전개된 성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³⁾ 사실시조에 나타난 주부들의 성담론을 찾아가는 작업은 작품 속에서 화자가 성담론에 적극적인 여성, 즉 성담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어 엮는 여성 화자의 담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설시조는 18세기 조선후기로 넘어 오면서 작품의 수가 증가하고 그 제재가 다양⁴⁾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확장되는 추세를 보여 준다. 이들 작품 중에는 금전이나 재화로 애정을 사고팔려는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의 사실시조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부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금전이나 재화를 매개로 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담론을 펼쳐낸다는 점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사실시조에 나타난 금전과 관련된 주부의 성담론은 금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성담론과 금전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난 성담론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사실시조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르게 역동적이고 기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성 화자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시조에 나타난 주부로서의 성담론에 강한 여성 화자의 모습은 18세기 이후 우리 사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열녀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

3) 류해춘, 「21세기 속의 화두, 사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담론(1)」, 『시조세계』 19집, 2005, 참조.

류해춘, 「21세기 속의 화두, 사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담론(2)」, 『시조세계』 20집, 2005, 참조.

4)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정음사, 1949.

김학성, 「사설시조의 작가층」,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김홍규, 『사설시조』,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신은경, 『사설시조의 시학 연구』, 서강대대학원(박사), 1988.

조규익, 『만항청류』, 박이정, 1999.

설시조에서는 발랄하고 생기가 넘치며 어떠한 어려움도 웃음으로 극복 하려는 여성 화자인 주부의 모습을 통해서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표현 하고 있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욕은 다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위장된 생식을 위한 성욕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성욕의 표현이 등장하고 그를 웃음으로 표출하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선구 적이라 할 수 있다.

2. 금전을 매개로 한 애정의 갈등

21세기는 대중가요도 드라마도 모두 사랑 타령이랄 수 있다. 영화도 만화도 사랑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상품광고 역시 상품을 팔기 위해 사랑을 입혀서 판다. 성에 관한 담론도 넘쳐 난다. 선정적인 사생활의 폭로에서 성의식의 조사라는 점잖은 탈을 쓴 실태조사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는 성(性)에 관한 말로 홍수를 이룬다.

조선후기 사설시조에는 남편과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고 인간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 이런 작품에서 화자는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갈등을 성담론에 연결시켜 잘못된 결혼이라며 자신의 가정생활을 회화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다음의 노래에서는 물질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부부의 성관계가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맞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여성들처럼 발랄하고 개방된 성담론이 조선후기의 사설시조에도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년아 말 듯거라 굶고 나마 자질 년아
 처음에 날을 볼 지 백년을 사자키에
 네 말을 곳지 듯고
 집 풀고 텃밭 풀고 가마 풀고 동숫 풀고
 자적마 썬밤이에 먹기 쇼를 마즈 프라
 너를 아니 주엇더나
 무스 일 뉘 낫바셔 노더를 노랏는다
 저 님아 님도 나를 쇼겏거든 년들 아니 쇼길손아

〈현대역〉

이 년아 말 듯거라 굶고 남아 죄지을 년아
 처음에 나를 볼 때 백년을 살자기에
 네 말을 끈이 듣고
 집 팔고 텃밭 팔고 가마 솔 팔고 작은 솔 팔고
 자주 빗 말 좋은 눈에 검은 쇼를 마저 프라
 너를 아니 주엇더나
 무슨 일 뉘 나빠셔 서방질로 놀았느냐
 저 입아 님도 나를 속엿거든 년들 아니 속일소나

〈樂學拾零〉⁵⁾

결혼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결혼한다. 누구나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 그 갈등의 요소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작품의 초장에서는 화자인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욕설과 그 저주로 시작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함을 예고하고 있다. 아마도 아내가 남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부부관계에서 신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설시조에서 남성 화자가 등장하여 주부들의 불합리와 무분별한 성욕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남성 화자가 등장하여 여성

5) 김홍규, 『사설시조』,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164번 참조.

을 비꼬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독자들을 긴장시키고 당황하게 한다. 우리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를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물로 문제가 있는 주부로 생각할 수 있다. 문제의 인물로 부각된 여성 화자의 비행은 중장에서 남성 화자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중장에 등장하는 남성 화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여성 화자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다. 여성 화자인 아내는 처음 만나서 남편과 백년을 해로하며 살자고 하였다. 이에 남성 화자는 아내의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집과 밭을 팔아서 그 재물을 아내에게 주고 가마솔과 작은 솔을 팔아서 아내에게 주었다. 그리고 말(馬)과 소 그리고 좋은 눈을 팔아서 아내에게 주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주면서까지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 화자는 아내가 무슨 일로 뭐가 나빠서 딴 짓을 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 화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할 여성 화자는 아니었다. 남성 화자의 아내에 대한 원망은 중장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가 하는 반격의 말로 인해 심각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중장에 등장한 여성 화자는 자신의 주장이 뚜렷한 인물이다. 중장에서 남성 화자가 주장하는 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유형의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장에서 여성 화자는 남이 나를 속였으니 자신도 남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여성 화자는 남자와 여자의 성문제를 동일시하면서 '남이 나를 속인 것이나 내가 남을 속인 것'은 서로 피장과장이라는 말로 응수하고 있다. 여성 화자의 이러한 담론에서 남성 화자가 제기한 심각성은 풀어지고, 희극성이 배가 되어, 우리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의 유지는 성(性)과 금전(金錢)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애정과 재산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바

탕으로 하여 맺어지는 애정은 상대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물질을 대리만족으로 하여 얻어진 애정에 대한 독점적 소유가 깨어지는 상황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애정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파괴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작품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고도 사랑에 목말라하는 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음의 작품에서는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의 달콤한 물질적 유혹에 속아 재산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두 작품이 서로 비교가 된다. 아래의 작품에 등장한 여성 화자는 삼년이 넘게 도련님과 애정을 불태우고 있어 정식적인 결혼관계는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이거나 첩이라고 해야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시조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로서의 주부는 정상적인 현모양처이라기보다는 사실혼의 상태인 주부들이 자주 등장한다.

都련任 날 보려홀제 百番남아 달너기를
 高臺廣室 奴婢田畝 世間汁物을 주마
 판쳐 盟誓ㅣ 허며
 大丈夫ㅣ 헛말 헛말 이리저리 조춌씨니
 至今에 三年이 다 盡토록 百無一實하고
 밤마다 불너니야 단잠만 씨이오니
 自今爲始 허야 가난한 키이와
 눈 거러 달 회고 님을 빗죽 흐리라

<현대역>

도련님 날 보려할 제 백번 님게 달래기를
 고대 광실 노비 전답 세간 살이를 주마
 단단히 맹세하며
 대장부 설마 헛말 하라 이리 저리 좃았더니
 지금껏 삼년이 다 가도록 하나도 해 주지 않고

밤마다 불러내어 단잠만 깨이오니
지금부터는 가기는커녕
눈 셀쭉하게 뜨고 입을 삐쭉 하리라

〈六堂本 靑丘永言〉⁶⁾

애정과 성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 같지만,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정과 성을 가장 인간적인 만남의 장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애정과 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는 도련님이 애정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애정에 눈이 멀어 남성 화자인 도련님과 은밀한 사랑을 즐겼다. 이런 비밀스러운 사랑은 금전적 보답과 둘 사이의 열정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적인 보답이 없고 실제로 이익이 없는 사랑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초장의 여성 화자는 은밀한 관계로 도련님과 사랑을 맺어온 사이라 할 수 있다. 여성 화자는 임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 백번 넘게 달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써 이 여성 화자는 첩의 신분에 처해 있으면서, 도련님의 성적인 상대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장에서 여성 화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약속과 자신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상대방이 크고 좋은 집, 노비와 전답에다가 세간살이를 장만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 화자는 대장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겨서 자신의 정성을 다 하여 삼년간이나 님을 섬겼다고 한다. 그런데 삼년이 지나도 아무 것도 해주는 것 없이 밤마다 단잠을 깨우는 일만 있었다고 한다. 이 여성 화자는 약

6)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853번 참조.

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종장에서 여성 화자는 남성의 허위를 인지하고 난 후 눈을 샅쭉하게 뜨고 입을 삐죽하는 애교 섞인 투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처음 사랑을 할 때에는 누구나 기대치가 있다. 특히 수동적인 여성일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불륜으로 만나 첩이 되었다 해도 서로 조화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당연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첩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늘 상습화되어 있는 부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상태가 생기고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는 부부라고 할 수 있다. 싸울 때에 보면 한시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입씨름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처럼 여성 화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인 남성은 끊임없이 달콤한 감언이설로 여성 화자를 붙잡아 두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의 부부관계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형의 남녀관계는 만나면 다투고 하여 서로가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경쟁이라도 벌이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관계가 잘 청산되지 않는 것은 금전적인 갈등보다도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축첩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금전이나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부부간에 성담론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설시조에 나타난 금전과 관련된 성담론은 여성인 주부가 직접 재현한 경우보다는, 가객들이나 사설시조의 담담층들이 사설시조를 부르면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적으로 재현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사설시조에 나타난 금전과 관련된 여성 화자의 성담론은 유

흥의 현장에서 불러졌지만 조선시대 여성들의 억눌린 성적 욕망을 풀어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현실과 규범에서 제도적으로 은폐되었던 주부들의 성담론이 사설시조라는 기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공론의 장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21세기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 금전보다는 진실한 애정의 추구

한 가정에서의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애정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일대일의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독점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애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순수하고 비타산적인 사랑의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부간의 애정은 경제적 기반이 충족되어야 더욱 원활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진실한 애정을 추구하는 유형의 성담론이 조선후기 사설시조에도 나타나고 있다.

사설시조에는 물질이나 금전과 진정한 애정이 대립할 때 금전보다는 애정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멋있고 잠자리를 잘하는 젊은 남편이나 말 잘하는 남편이 더욱 필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주부들의 성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설시조에도 조선후기 여성들의 성담론이 금전보다는 진실한 애정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高臺 廣室 나는 마다 錦衣 玉食 더욱 슬타
銀金 寶貨 奴婢 田宅 비단치마 大綴장옷
蜜花珠 것칼 紫의 鄉織 저구리 싯머리 石雄黃
오로 다 꿈즈리 꺾다
아마도 내의 願하기는
글 줄하고 말 줄하고 얼굴 기자하고
꿈즈리 잘하는 절물 書房인가 호노라

〈현대역〉

고대 광실 나는 싫다 비단 옷 좋은 음식 더욱 싫다
은금 보화 노비 전택 비단 치마 대단 장옷
밀화주 곁칼 자주빛 명주 저고리 싯머리 석용황
모두 다 꿈자리 같으니
아마도 나의 평생 원하기는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얼굴 깨끗하고
잠자리 잘하는 젊은 서방인가 하노라

〈瓶窩歌曲集〉⁷⁾

이 작품에서는 물질과 금전의 풍요로움이 비현실적인 '꿈'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정생활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면, 주부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답답한 삶에 대한 반발로 먼저 남편의 능력에 부정을 하면서 대리만족하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인물 좋고 '젊은 서방'으로 대표되는 사내를 선정하여 여성 화자가 추구하는 진실한 애정의 상대자로 생각하면서 남편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물질이나 금전보다는 진실한 애정을 추구하는 여성 화자의 소망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사설시조는 여성 화자가 봉건제도 하에서 금전이나 물질보다도 자신의 진실한 애정에 대한 소망을 풀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초장에서 여성 화자는 물질문제인 집과 옷 그리고 음식에 대하여 자

7)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174번 참조.

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과 비단으로 된 옷을 입으면서 사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주가 해결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여성 화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만족한 생활을 부정하여 주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아마도 이 작품의 여성 화자인 주부는 평소 가장인 남편에게서 얻지 못했던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애정욕구를 가감없이 표출하여 이상적인 남편과의 애정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애정욕구의 대리만족으로써 사설시조의 특성인 감상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감상성이라는 것은 화자가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통해서 슬픔이나 애환을 가감없이 드러내려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대중예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에서 여성 화자는 초장에서 서술한 내용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구체화하여 부연시키며 병렬하고 있어 초장과 대등한 의미로 연결된다. 부연시키며 병렬하는 내용은 돈과 집 그리고 옷으로 이어진다. 음식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금전과 좋은 집을 나열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여성의 취향을 잘 드러내는 옷과 머리 등의 좋은 장신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금전보다 진실한 애정표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좋고 훌륭한 의식주를 모두 동원하고 있다. 이 작품의 여성 화자는 일반적으로 금전과 물질이 풍부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배우자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서 진실한 애정을 찾아나서는 자유로운 성담론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을 수 있다.

종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소망이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인물 좋고 잠자리 잘하는 젊은 서방'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보아 화자가 가정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이라면 금전과 교양을 골고루 갖춘 멋있는 남편을 원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갖추어진 진실한 애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뿐만아니라 진실한 애정을 추구하는 이 작품의 의미는 물질적인 사랑보다는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설시조는 여성 화자가 장사치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과소비를 해서라도 연지분을 사겠다는 것으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성적인 매력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며 비싼 화장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성형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덕들에 臙脂라 粉들 사오
 저 장사야 네 臙脂粉 곱거든 사자
 곱든 비록 안이되
 볼음연 네업든 嬌態 절로 나는 臙脂粉이외
 眞實로 글어호 량이면 험 슌거슬 풀만정
 대엿 말이나 사리라

〈현대역〉

덕들에 연지라 분들 사오
 저 장사야 네 연지분 곱거든 사자
 곱지는 비록 아니하되
 바르면 예 없던 교태 절로 나는 연지분이오
 진실로 그러할 양이면 험 속 것을 팔망정
 대엿 말이나 사리라

〈일석본 청구영언〉⁸⁾

장사치와 여성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다른 ‘덕들에’ 유형의 시조보다도 장사치와 고객 간의 성에 관한 흥미로운 흥정이 추가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구어(口

8)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846 참조.

語)체 그대로 옮겨 놓아 상행위의 사실적인 모습을 포착해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고정된 삶을 형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여성 화자는 물질적으로 과소비를 하더라도 남에게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고 남의 애정을 쟁취하기 위해 연지분을 사서 바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 내의 대화는 상행위를 묘사한 부분도 있지만 여성 화자와 장사치의 성적인 말놀음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초장에서는 장사치로 대표되는 남성 화자와 고객으로 연상되는 여성 화자의 상거래를 서술하고 있다. 상행위는 조선후기 여성의 아름다움과 교태를 상징하는 연지분을 사고파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일은 고급이 모두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여성과 그 아름다움을 도와주는 화장품을 팔려는 장사치가 서로 흥정을 하면서 상품의 품질이 어떤지를 초장에서 여성 화자가 묻고 있다.

이에 남성 화자인 장사치는 중장에서 여성 화자의 질문에 엉뚱하게 연지분의 가루가 곱지는 않지만 사서 바르면 옛날에 없던 교태가 저절로 생겨난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연지분을 사고파는 상행위가 반전이 되어 남녀간의 성적인 연상을 일으키도록 한다. 건전한 상행위는 장사치가 여성 고객에게 사서 바르면 교태가 일어난다는 말을 매개로 하여 성적인 말놀음으로 변하고 있다.

중장에서 여성 화자는 장사치의 성적인 말놀음에 더하여 정말로 교태가 생긴다면 현 속옷을 팔더라도 연지분을 여섯 말이나 넘게 사서 바르겠다고 한다. 즉 자신의 매력적이고 여성적인 외모를 위해서는 과소비를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정에 이르게 되면 장사치와 주부의 입장이 서로 바뀌어 장사치의 성적인 말놀음에 더하여 주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성적인 욕담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아마도 연지

분을 사고팔려는 장사치의 상행위를 매개로 하여 남녀간의 애정을 사고파는 상황으로 논의가 발전하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지 이 여성 화자는 연지분을 사는데 동의했고, 장사치는 남녀간의 성적인 욕망을 매개로 하여 여성들에게 연지분을 팔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사치의 성담론을 통한 상행위에 대해 여성 화자의 지나치고 과장된 대응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이러한 성적인 욕망은 장사치보다 여성 화자에게 강조되고 희화화되어 당대 여성들의 자유로운 성담론을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장사치의 성적인 말놀음을 바탕으로 여성 화자가 상행위 보다는 성적인 담론을 주도하는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다. 여성 고객에 연지분을 팔려는 장사치의 타고난 상행위 는 여성 고객의 잠재적인 성욕을 자극하게 하여 일시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서로 성적인 놀음으로 장사판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설시조에 나타난 금전문제가 물질적 궁핍을 강요하는 사회와의 투쟁이 드러나지 않고, 오락이거나 유희의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사설시조는 유희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선택문제는 금전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삶의 질 문제 등 복합적으로 뒤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처럼 가정생활에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진실한 애정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에서 배우자 선택이 이처럼 단순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행복한 결혼생활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간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문학작품에 표출되는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로 바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명해 볼 기회를 갖기는 사실상 어렵다. 비록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약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이 애정의 문제가 아

닌가 한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사설시조는 이처럼 회화적이고 유희지향적인 성담론을 통해서 주부들의 억눌린 성의식을 발산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21세기 우리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에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도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가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지혜로운 웃음으로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부들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설시조에 나타난 주부들의 성담론을 금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금전은 가정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고, 남녀의 결혼에서도 금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소비를 하고 다시 재화를 창출하게 되고, 소비와 재화의 창출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부모님의 애정을 받으며 자라온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였을 때는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은 과거 가부장제가 지배함으로써 그 가족의 가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부는 가사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간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갈등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그리고 애정의 문제일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에 애정의 갈등이 추가되었을 때 그 부부의 갈등은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이 재화나 물질을 들여 여성을 유혹한 경우의 사설시조에서는 금전을 매개로 한 애정의 갈등이 주된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설시조는 남성이 여성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고백하는 주체가 되어 상대 여성과 함께 애정관계를 지속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을 매개로 한 부부의 애정관계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맞바람을 피우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어, 조선 시대의 발랄하고 열린 성담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물질을 대리만족으로 하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어진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설시조는 당시 여성이나 남성들이 가정에서 일어난 애정갈등을 서로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회화적인 표현으로 부부간의 애정갈등을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사설시조가 연회의 현장에서 가창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사설시조가 불려질 때에 그 공간은 유흥성과 오락성이 고조되어 인간 본연의 질편한 노래가 불려져서 남녀간에 노골적인 성(性)에 대한 묘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설시조에 나타난 남녀의 대등한 성담론은 여성의 성적 억압을 상상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욕망의 투사체이거나 혹은 대리 만족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다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전보다는 인간다운 진실한 애정을 추구한 사설시조에서는 애정을 금전이나 물질과 비교하는 일에 초월하여 자유롭고 진실한 성담론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 애정의 주체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설시조에서도 성담론은 비밀스럽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주부의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심지어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젊은 남성을 상대방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여성 화자는 물질과 금전을 현신짝 버리듯 하면서 성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여성 화자는 물질을 거부함으로써 성적 기저에 억눌린 심리를 보상받으려는 듯

이 금전과 물질을 초월하여 완벽한 남성애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성담론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다른 사설시조에서는 여성 고객에게 연지분을 팔려는 장사치의 타고난 상행위가 여성 고객의 잠재적인 성욕을 자극하자, 단번에 여성 화자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작품의 내용을 상행위에서 남녀의 애정생활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때 여성 화자는 성담론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자신의 성적 매력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과소비도 아끼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사설시조에 나타난 물질문제나 금전 문제는 물질적 궁핍을 강요하는 사회와의 투쟁이 드러나지 않고 오락성이나 유희성의 측면에서 재화나 금전의 과소비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설시조에서는 조선후기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험이나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짝트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금전을 매개로 한 주부들의 성담론이라는 말은 현재 무너져가는 가족관계와 천민자본주의 그리고 성(性) 산업의 노예가 되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풍류방이나 유희의 산물로 흥행한 사설시조에 담겨있는 주부의 모습은 유교적 질서가 확고했던 조선시대에도 여성이 가정 내에서 그 역할이 점차 변해가고 있었으며, 현대 여성들 못지않게 자유롭게 발랄한 성담론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홍규, 『사설시조』,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상,하)』, 아세아문화사, 1991.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2. 연구논저

-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정음사, 1949.
- 김석희, 「사설시조 '각시너 내 첩(妾)이 되나'의 의미와 의미변용」,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 김종환, 『사설시조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의 표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학원(박사), 1994.
- 김학성, 「사설시조의 작가층」,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 류해춘, 「21세기 속의 화두, 사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담론(1)」, 『시조세계』 19집, 2005.
- 류해춘, 「21세기 속의 화두, 사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담론(2)」, 『시조세계』 20집, 2005.
- 류해춘, 「사설시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유형과 그 특성」, 『어문학』 52집, 1990.
- 박경애, 『조선후기 시조의 통속화 과정과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학원(박사), 1997.
- 신은경, 『사설시조의 시학 연구』, 서강대학교학원(박사), 1988.
- 이영태, 「'각씨너[네]~' 시조의 검토와 '각시너 내 좃이 되나'의 해석」, 『시조학논총』 22집, 2005.
- 조규익, 『만황청류』, 박이정,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Pecuniary mediated Sexual Discussion in
Saseol Sijo

Ryoo Hae-Choon

Saseol Sijo which reflects on people's life often shows us relationships between love and economy of those periods' people in Chosun dynasty. Meaning of a word 'housewife' is a woman who supporting and organizing family with her husband.

Materialistic problems and economic problems appeared in Saseol

Sijo emphasize entertaining and merrymaking rather than struggling to the society enforcing poverty. Therefore, it is often said that Saseol Sijo stimulates overconsumption of goods and money. We can regard sexual discussions appeared in those periods' Saseol Sijo as reflections of desire which are the way of releasing repressed sexual appetite of women or substitutions of satisfying their sexual appetite. Features of housewives appeared in Poong-ryu-bang and Saseol Sijo which are succeeded as productions of merrymaking in Latter half period of Chosun dynasty, can spotlight because of its meanings. It told us not only housewives' roles are started to change but also vivid sexual discussions similar to nowadays things are begun in latter half period of Chosun dynasty.

Main subject pecuniary mediated sexual discussion of housewives appeared in Saseol Sijo teaches a lot of things to twenty first century's contemporary people experiencing collapsed family relationship, pariakapitalismus and wide spread sexual industries.

Keywords : Saseol Sijo, Pecuniary, Sexual Discussion, Pariakapitalismus, Merrymaking, Entertaining, Reflection, Poong-ryu-bang, Contemporary people

논문투고일 : 2006년 6월 1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7월 18일